



내가 해 마다

‘크리스마스 씰’을 사는 이유(2)

금 상 조은영(경북 경주시 동천동 우방 아파트 110-706)

(지난호에서 이어집니다.)

갑자기 아버지의 초라한 모습이 떠올랐다. 딸이 졸업을 해서 반듯한 회사에 취직을 하면 그 동안 고생한 보람이 있을 것이라며 좋아하셨던 그 모습이...

내가 결핵에 걸려 치료를 받아야 한다는 사실보다 결핵으로 인해 온 가족의 꿈이 산산조각 난 것이 더 가슴아팠다

남들보다 정말 정직하게 열심히 살았는데 돌아오는 대가가 겨우 냉담한 현실이니 도무지 믿기지 않았다.

거리를 헤매면서 다른 병원을 세 군대나 더 찾아갔다 그러나 결과는 결핵 2기...

의사는 흑백 흉부 사진을 보여주면서 왼쪽 폐를 가리켰고 지금 결핵균이 계속 증식을 하고 있으니 치료와 더불어 충분한 휴식과 영양을 섭취해야 한다고 했지만 난 병원 문을 나서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모른다.

이제는 모든 것이 끝났고 하늘이 무너진 것 같았다 나의 꿈이 완전히 산산 조각이 났던 것이다. 아니 나의 꿈이 아닌 우리 가난한 가족의 희망이 완전히 박살난 것이다

친구들이 하나 둘 하얀 가운을 입고 영양사로 취업될때 난 한줌의 독한 결핵약을 하루 세끼 꼬박 챙겨 먹으면서 피눈물을 삼켰다. 가족과 눈빛만 마주쳐도 죄인인양 미안하기도 했고, 싫어서 대화도 잊은채 기침 때문에 마스크를 하고 지냈다. 식사 시간에도 다른 식판에 담아 다락방에서 먹었고,

먹고 나면 하루에도 몇번이고 펄펄 끓는 물에 씻어야 직성이 풀렸다.

보건소에서 식구들이 모두 방사선 검사를 할 때 흑 나 때문에 전염이 될까 조바심이 났지만 다행히 전염이 되지 않아 겨우 안도의 한숨을 쉬기도 했다.

예전보다 더 잦은 아버지의 술주정도 다 내 탓인 것 같았고, 그때 인생이 그렇게 허무하고 미울수가 없었다 스무살 때...

의사는 결핵약이 독하니 잘먹고 편히 쉬어야 한다고 했지만 녀석지 않는 형편에 고기국 먹은 적이 손꼽아 헤아릴 정도니 펄펄 날리는 정부미 밥을 먹고, 결핵약을 한 줌 먹고 나면 속이 쓰리고 메스껍기도 했다. 허약한 상태에서 영양까지 부족했지만 내 스무살은 너무나 일찍 절이 들어 안으로 공삭기만 했다.

기침이 끊이지 않았고 그 통증으로 가슴이 칼로 도려낼 정도로 아팠다.

생활 자체가 무력감으로 만사가 귀찮고 피곤했으며 늘 미열까지 났고 곧 검붉은 혈담까지 뱉어내니 체중은 날로 줄어 교쟁이처럼 말라갔다. 이러다가 정말 시험도 치기전에 내가 먼저 죽는게 아닐까?란 생각도 들었다.

보름에 한 번 보건소에 가서 두툼하게 받아오는 결핵약이 먹기 싫어서 어머니 몰래 쓰레기통에 버렸다. 소독 냄새가 진동하는 보건소에 가면 객담을 담아오라고 작은 검사통을 내미는 보건소 직원의 곱지 않은 눈길도 미

웠고, 흑 전염이라고 되지 않을까 괜히 걱정하는게 아닌가 라고 스스로 오해를 하기도 해서 공짜약 이지만 보건소에 가기가 싫기도 했다.

그 당시 꿈을 잃은 스무살의 나는 모든 것이 싫고 떠나고 싶다는 유혹의 손길에 간혹 아주 간혹은 죽음이 라는 나쁜 생각도 했다. 그러나 강하게 나를 붙드는 것에 발목이 잡혀 다시 일어섰는데 그것은 다름아닌 '사랑' 이었다

"영아 아버지애~, 아무래도 자가 결핵인가뭔가 몸쓸 병에 걸리게 등록금 보탠다고 먼지투성이 공장에서 일한거 때문이 아님니까..."

"나도 지나고 보니 영아가 그 공장에서 일한다고 그런 것 같다. 다른 아이들처럼 잘 입히지도 잘 먹이지도 못해 놓고 병만 덜렁 생기게 한거는 다 무능한 이 아버지 책임이다. 김씨가 그러는데 결핵약이 정말로 독하다 그러더라. 며칠 뒤에 품삯 받으면 제일 먼저 영아 고기국부터 먼저 끊어 줘라. 독한 약만 먹고 교쟁이 처럼 말라서 그 어린 것이 말은 안해도 얼마나 맴이 깊은지..."

잠결에 다락방 문틈 사이로 어머니의 흐느끼는 소리에 잠이 깬 오랫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다. 가난한 부모님이지만 병에 걸린 딸을 미워한 것이 아니라 너무나 사랑하고 계신다는 그 사랑을 확인하고는, 그 날밤 다락방 문을 사이에 두고 어머니도 울고 숨죽이고 나도 울었다 그리고 그리고...

다시 결심을 했다. 모든 것은 마음 먹기에 달렸다고... 내 마음을 다르게 먹기로 결심을 했다

지금 내 폐를 갈아 먹는 결핵이라는 피할수 없는 운명에 맞닿았지만 이겨내는 방법은 교박 약을 챙겨먹고 치료를 받을 것. 그리고 무엇보다 이 병을 이겨내야 건강을 되찾고 꿈을 다시 되찾을수 있다는 결심을 했다.

친구들처럼 당당하게 흰 가운을 입고 영양사가 될수 있다는 꿈을 가진 굳은 정신력이 주저않은 나를 일으켜 세웠다.

물래 버렸던 약을 이젠 교박 챙겨먹고 보건소에 갈 때 마다 결핵에 관련된 책자를 가져와서 참고로 했다.

조금씩 산책도 하고 즐냄기와 계단 오르내리기 등 운동도 하고 집 근처 공터에 텃밭을 일궈 상추도 먹고 다시 영양사 시험 준비를 위해 책을 펼쳤다. 그것은 한때 삶을 포기할뻔한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였다.

눈 밑에 움푹 패인 아픈 얼굴이 어느새 물라보게 화색이 돌고 퍼런 핏줄이 흰히 보일정도로 창백한 피부가 어느새 까맣게 그을렸고 교쟁이처럼 말랐던 체중이 조금씩 늘어가면서 내 몸이 조금씩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그렇게 건강해진후 다른 친구들보다 꼭 일년 늦게 꿈에도 그리던 영양사가 되어 흰 가운을 입고 첫 근무하던 날, 점심 배식 시간에 허염없이 눈물이 났다. 뉘아도 뉘아도 흐르는 눈물은 그 동안의 설움과 감동이 북받쳐 울랐던 것이다.

영양사 생활을 다섯해 하면서 보건소에 가서 식당 아주머니들과 건강검진을 할 때 엑스레이 사진에는 아팠

던 상처가 허영게 남아있을 뿐 지금도 건강하게 잘 살고 있다.

스무살때 영양사시험을 치기위해 우연히 조기 발견한 결핵을 완치하고 십오년을 더 살면서 재발이 되지않았고 늘 건강에 유의하면서 서른 다섯해를 맞았다.

빨간 우체통에 연하장을 넣는다.

한 해 동안의 그 알뜰하고 살뜰한 사랑을 감사하면서 우표와 나란히 부친 크리스마스 썰이 σο옥~ 우체통에 들어간다.

부산에 계신 시어머님께, 친정 부모님께, 그리고 늘 가까이 있으면서도 소중함을 잊고 사는 남편한테, 그리고 아이들의 선생님께 ...

그러나 마지막 한 통의 편지는 손에서 만지작거리다가 결국은 호주머니에 다시 넣고 집으로 돌아왔다

부산시 금정구 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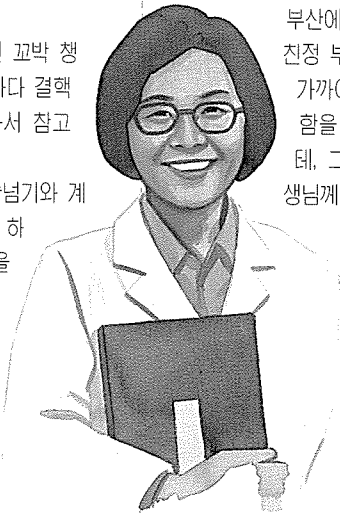
동... 김수미. 이제 그 수미언니한테 보내는 편지는 하늘나라로 부쳐야 할 것 같다

점심을 먹고 난후 우연히 장난을 치다 만져진 언니의 가슴에 뭔가 몽우리가 잡혀 농담 삼아 병원에 가보라고 했던 것이 결국 유방암 말기였다.

너무 늦게 왔다는 의사의 말이 아직 컷전에 생생한데 6개월을 넘지 못하고 결국 언니는 훌연히 우리 곁을 떠났다.

서른 여덟해를 살다간 세상이 너무나 미련이 남고 아쉬워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아 지꾸 맴도는 것 같다.

아무것도 모르고 놓고 있는 아이들의 곁을...



언니의 명복을 빌고 돌아온 후 나는 며칠째 공공 앓았다. 내가 스무살 때 느꼈던 인생의 허무함과 무력함이 자꾸 엄습해왔다.

그때 남편은 무작정 나의 손을 끌고 종합건강검진을 하자고 건강관리협회로 데리고 갔다. 부인을 잃은 남편과 그 가정을 옆에서 지켜보았던 남편이 내린 결론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건강' 이란 것.

그리고 보니 영양사 생활을 할 때 교박 교박 일년에 정기검진을 했는데 결혼 7년이 지난 후 돈이 무서워서 한번도 못했던 건강검진을 일탈형으로 했다.

시댁에 아이들을 맡기고 남편과 여러가지 건강검진을 하고 일주일을 기다렸는데 그 시간이 왜 그리 길게만 느껴졌을까?

부산의 건강관리협회에서 검진을 하고 보름 후 지금 살고 있는 경주에서 결과를 우편으로 받았다. 남편은 위 궤양이 조금 있을뿐 건강하고 나도 별 이상이 없다는 결과를 받고 나서야 긴 안도의 한 숨을 쉬었다.

그리고 며칠 후 건강관리협회 담당자로부터 상세하고 친절한 전화 서비스를 받고 나서야 정말 내가 지금 건강하다는 사실을 실감했다.

신문 한 귀퉁이의 짧은 글귀가 가슴에 와닿아서 오려놓았다

세계적인 우주 물리학자인 스티븐 호킹 박사는 자신이 이룬 업적 중 가장 큰 업적을 꼽으라면 서슴없이 '살아있는것'이라고 한다.

지금 내가 '건강하게 살아있는 것' 또한 이 세상을 살면서 그 어떤 일보다 더 소중한 일이고 감사하고 감사한 일이다.

늘 불평 불만 투성인 서른 다섯살에 참으로 귀한 그 한마디 글귀가 겸손하게 살라고 다독인다. 하루 하루를 감사하고 겸손하고 사랑하면서 살아가고 다독거린다. 